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5월 14일(주일) 제1147호

## 영적 지도자 존 파이퍼 목사 온다

디자인어링 갓 컨퍼런스 29~30일 양재 사랑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 초청 '디자인어링 갓(Desiring God) 컨퍼런스'가 5월 29~30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이번 컨퍼런스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와 평신도들을 위한 '저녁부흥집회'로 진행된다.

목회자 컨퍼런스는 29~30일 이틀 동안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린다. 존 파이퍼 목사가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 '복음으로 빚어진 정신', '복음으로 빚어진 입'을 주제로 강의한다. 특강도 이어진다. 29일에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가 '한 시대의 축복이 되는 요셉'을 주제로 강의

하고, 30일에는 김춘근 교수(IAMA 설립자)가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을 주제로 강의한다. 교회 갱신을 원하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2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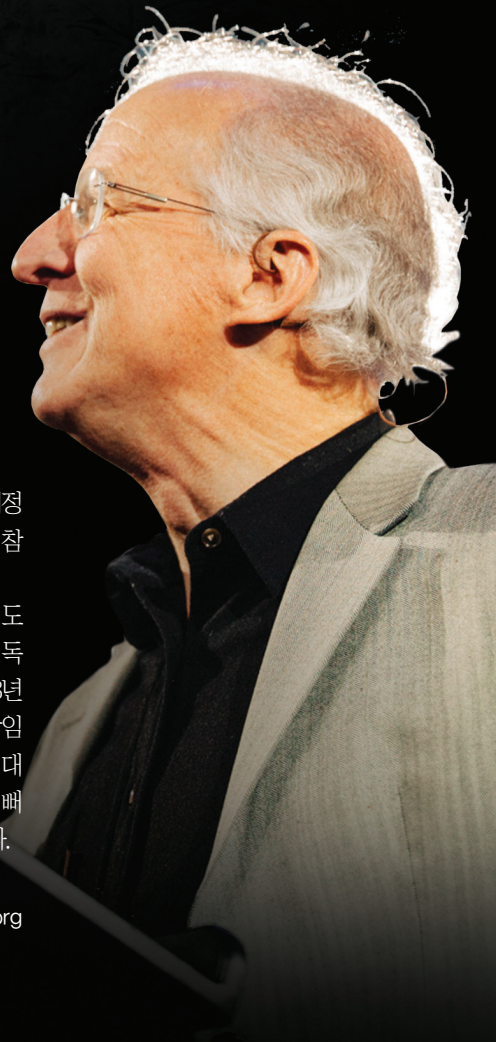
일반 성도들을 위한 저녁부흥집회도 개최된다. 30일과 31일 양재 사랑홀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오후 7시 30분 시작된다. 31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는 집회 실황은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저녁부흥집회에서 존 파이퍼 목사는 '그리스도의 긴급한 부르심',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접수나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미국 최고의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위튼대와 풀러신학교, 독일 뮌헨대에서 공부했고, 1980년부터 33년 동안 베들레헴침례교회(미네소타 주) 담임 목사를 지냈다. 지금은 '디자인어링 갓' 대표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 등 40여 권이 있다.

문의: 02-570-7322, 732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5월 22일 서빙고 본당 ... 신청 서둘러야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5월 2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번 전도집회에는 자녀들의 초청을 받은 부모 21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성도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이번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개그맨 이흥렬, 가수 노사연·이무송 부부, 국악찬양팀 가야랑, 배우 오미희, 실버합창단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전도본부는 이번 집회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이전 집회에서는 자녀들이 초청된 부

모와 함께 자리하지 않았지만 이번부터는 동석한다. 또 손수 작성한 편지를 읽어드리는 시간도 추가됐다. 후속프로그램으로는 영화관 데이트가 진행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행복드림콘서트는 부모 전도에 탁월한 집회라고 인정받고 있다. 결신율도 매우 높다. 2013년 75%, 2014년 81%, 2015년 90%, 2016년 70%가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2017 카운트다운 참가자 모집

26~27일 양재, 28일 장충실내체육관

대학청년부에서 2017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온라인(www.countdown.or.kr)이나 오늘(14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1층 로비에 설치되는 흥

보스에서 하면 된다. 지금까지 청년 3,500명이 신청했다. 회비는 5월 16일까지 신청하면 3만원, 당일 접수는 3만 5천원이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5월 26일과

27일 양재 온누리교회, 28일 장충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존파이퍼 목사(베들레헴침례교회), 김춘근 교수(IAMA 설립자), 이용규 선교사(내려놓음 저자), 이재훈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이상준 목사가 강의한다.

한편 카운트다운 집회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오는 19일(금) 오후 7시 양재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02-570-7345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스승의 주일 행사

영화 관람, 사진전 등 풍성

오늘(14일) 스승의 주일기념 행사가 열린다.

서빙고와 양재 차세대교사 600명이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한다. 부천은 계단과 로비에서 교사들의 사진전이 2주 동안 개최된다. 수원은 본당에서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한다. 대전은 성인과 차세대가 통합예배를 드린다.

평택은 오늘(14일) 어버이주일, 다음 주일(21일)에는 스승의 주일 행사를 진행한다.

남양주는 부서별로 교사들을 위한 선물과 감사편지를, 인천은 교사들에게 커피 쿠폰을, 강동은 코치들에게 피자상품권을 선물한다. 양지는 광장에서 교사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한다.

/ 이소정 기자

특집 대담\_5월 비전헌금 '군선교 후원'

## 63만 장병들에게 복음을!

군선교의 중요성과 비전 그리고 방법을 논하다

오늘(14일) 봉헌하는 5월 비전헌금은 온누리교회 군선교사역을 위하여 사용된다. 군선교팀은 대한민국 63만 국군 장병들의 복음화를 꿈꾸며 부대들을 찾아다니며 전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선교는 청년전도의 폭이 좁아진 이 시대에 청년복음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손꼽히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역이다. 군선교팀 한화수 목사(군선교팀 담당목사), 강찬석 장로(전 군선교팀 대표장로), 나영욱 장로(군선교팀 대표장로), 이호상 중령(육사교회 담임목사)이 육군사관학교 육사교회에 모여 군선교의 중요성과 비전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요즘 우리나라 군선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호상 중령(이하 이):** “군선교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장병들을 단체로 동원해서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을 제외하면 예배시간 확보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어려운데 키우는 환경은 더 열악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회와 달리 청년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입니다. 어떻게든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군선교에 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선교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강찬석 장로(이하 강):** “예전에는 군선교를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에는 만들어진 발에 씨만 뿌리면 됐다면 지금은 발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으면 장병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군선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나영욱 장로(이하 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세대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유일한 진리인 복음이 굴복되는 일은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군선교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효과적인 군선교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화수 목사(이하 한):** “기독교와 타종교의 핵심적인 차이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장병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병

들을 제자화시켜야 합니다. 제자화 시키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더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감합니다. 저는 훈련소, 병과학교, 야전부대,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사역하면서 훈련소에서 세례 받은 장병들의 신앙이 왜 연결되지 않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세례 받은 장병들이 부대를 옮겨갈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신앙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 교회에는 단계에 맞는 양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파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전도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군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전문가집단도 구성되어야 합니다.”

**나:** “군대 교회들마다 필요가 다르고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민간 교회와 연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각 군대 교회에 맞는 맞춤형전도집회도 필요합니다. 가장 고민해야 할 곳은 무목교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 교회 중에 600여 곳에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 무목교회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형교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강:**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1년 동안 군대 교회에서 사역하는 방법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훈련에도 도움이 되고, 연령대가 비슷한 청년끼리 교류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일이 실현되지 않

“살아계신 예수님과 장병들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군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군대의 무목교회를 돕는 것이 대형교회의 책무입니다.”

“장병들의 상황에 맞는 신앙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았지만 대형교회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군사관학교의 학생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리더를 전도하면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게 돼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30여 년 동안 복무합니다. 그들이 복무하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면 큰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타종교의 적극적인 포교활동도 걱정됩니다.

**이:** “A종교의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봤더니 연예인들의 위문공연 때문이었습니다. 그 행사에서는 선정적인 공연도 서슴없이 보여줍니다. 젊은이들이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전도는 공허한 줄뿐입니다. B종교도 포교 활동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신자화가 되지 않아 활동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C종교는 병사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교리 전달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단입니다. 군대에 와서 마음이 곤고해지고 갈급해져 있는 청년들을 파고듭니다. 이단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올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타종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비전헌금에 동참하는 성도님들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한: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사는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집단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래의 종교를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집단개종과 집단개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선교는 대단히 효과적인 선교방법입니다.

오늘 봉헌하는 비전헌금으로 대한민국 군대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보급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문화만큼 좋은 선교 도구가 없습니다. 장병들이 영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소중한 마음을 가득 담아 전달하겠습니다.

**강:** “고기를 모이게 하려면 떡밥을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을 단순히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모이게 만들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전헌금으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보급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군선교를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언젠가 군선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흔히 군선교를 ‘초코파이 선교’라고 합니다. 초코파이를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물 하나가 대한민국 장병들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모아주시는 귀중한 헌금을 합당하고 귀중하게 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화수 목사  
(군선교팀 담당목사)나영욱 장로  
(군선교팀 대표장로)강찬석 장로  
(전 군선교팀 대표장로)이호상 중령  
(육사교회 담임목사)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가난한 이를 도우라

신명기 15:1~15

“나눔은 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복을 주십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 주는 감동은 가난하고 병들었던 당시 조선인들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역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었지만 너무 일찍 병이 들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찢림을 주고 감동과 도전을 주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장로님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받은 후원금의 절반을 교회에 후원하고, 그 절반의 절반으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동료 선교사가 서서평 선교사에게 “당신도 그렇게 어려운데 입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어떻게 살려고 하나”고 묻자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가치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안전함을 느끼려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합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 현재 가지고 있는 수입의 두 배가 필요하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것에 두 배 정도가 더 있어야 안전함을 느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배를 더 가진다고 해서 안전함이 느껴질까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어떤 제도와 정책보다 가치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라는 경제학 논문이 있습니다. 그가 〈국부론〉을 쓰기 전에 쓴 책이 〈도덕감정론〉입니다. 그는 경제학자 이전에 도덕과 윤리학 교수였습니다.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은총을 베푸는 손임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도덕적인 가치에 부합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경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도덕적인 가치를 따라 움직이면 그 사회는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도덕이고,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심이기에 때문입니다. 경제가 도덕의 가치보다 우선일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는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1933년 미국의 대공황 바로 직전에도 도덕적 가치가 붕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과 구제를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에 경제생활의 중심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구제가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은 전 지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가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 원인입니다.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기근이나 질병 같은 자연재해는 불가피한 원인입니다. 둘째, 개인적인 원인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삶과 행동, 노력과 실천이 없는 삶은 개인적인 원인입니다. 셋째,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부정부패와 억압과 착취 등의 구조적인 악이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원인을 따지는 것보다 가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율법 전체를 종합해보면 가난한 이들을 향한 보살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가난에 대한 대응책들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추수할 때마다 너희들은 그 밭의 모퉁이를 남겨두어야”는 말씀입니다. 모퉁이까지 살살이 추수하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마다 드리는 구제의 십일조가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십일조 뿐만 아니라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소출의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기금으로 조성합니다. 또한 “매 칠년마다 땅의 안식년을 가질 때 그 땅의 휴경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곡물들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니 너희는 절대로 거둬들이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친족을 가난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러한 대응책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응책이 훨씬 적극적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네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네가 그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네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7~11절).

### 도덕적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율법이 파격적으로 느껴질까요.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율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도덕적 가치가 세워진 사회일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제도와 정책을 바꿔도 가난한 이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경제제도 이전에 도덕적 가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제도가 탐욕과 경쟁과 이기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낯설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제도였을까. 사실 이 율법이 얼마나 많이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는 잘 지켰을 것이고, 어느 시대는 잘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졌을 때는 어떤 때이고,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언제였는지가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습니다.

2006년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작가이자 연설가이자 ‘소저너스’라는 사회운동단체의 대표 짐 월리스가 강연에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유물을 당시 이스라엘이 비교적 잘사는 사회였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유물이 발견된 시대는 예언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시대는 빈부격차가 심했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는 예언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빚 탕감과 노예 해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평등,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을 구별된 평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의 법칙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뤄지는 평등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사랑의 법칙 안에서 그것이 행해진다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 청지기, 모두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넉넉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너희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펴져야 손이 펴집니다. 마음이 인색하면 절대 손이 펴지지 않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부와 가난을 통해서 부자가 얼마나 넉넉하게 관대한지 그리고 가난한 자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며 “부와 가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져야 이러한 구별된 평등을 실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찰스 피니는 “성도들이 삶에서 청지기직을 부인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징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교리적으로 부인하면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청지기직을 부인하는 것도 징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시 24:1).

어느 부유한 농장 주인이 존 웨슬레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의 일부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소유한 땅이 그렇게 넓은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 기획

5월은 가정의 달 \_ 1. 성경과 효(孝)

## 기독교가 진짜 효도하는 종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고, 가족 넘어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 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애비애미도 몰라보는 근본도 없는 것들이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크리스천을 비판하는 말이다. 이처럼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교회와 기독교는 불효하는 서양 종교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다. 어디 이뿐인가. 교회 다니지 않는 한 친구는 이런 말도 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에 시댁 가기 싫고,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  
마치 교회가 불효를 조장하는 말처럼 고깝게 들린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말 불효하는 종교일까. 단언컨대 아니다. 성경은 유교보다 먼저 효를 계율로 명령했을 정도로 효를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참 효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 기독교는 절대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가 아니다. 효의 상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라고 생각할까. 아마 효와 거리가 멀어 보이게 하는 성경 구절들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창 12:1).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마 10:34-35).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마 4:21-22).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성경(십계명)은 살인과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먼저 명령하고 있다. 1~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5~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즉 이웃사람(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이 으뜸이라고 하셨다.

한국은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릴 만큼 예의를 중요시 여겼다. 이는 유교의 영향이 크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잘 섬기고, 스승을 존경하고, 군신의 예를 다해 왕을 섬기는 것 등 모두 유교의 기본 가르침이다. 공자가 “효란 덕의 근본이요, 가르침이 비롯되는 곳”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유교는 효를 중요시했다. 오죽했으면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孝之始也; 사람의 신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자가 태어나기 약 천 년 전에 이미 십계명을 통해 효를 계율로 명령하셨다. 유교보다 기독교가 효의 원조이다.

성경이 말하는 효,  
인륜(人倫)을 넘어서 천륜(天倫)

성경에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가차 없는 징계와 형벌이 나타나 있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출 21:15).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가서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신 21:18-21).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 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잠 30:17).

신약에도 불효의 징벌에 대한 구절이 많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 효를 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롬 1:30-32).

불효를 행한 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형벌은 결국 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다. 곧 여호와와 저주를 받아 끊어지고(시 37:22), 종국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감(마 25:41)을 의미한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인륜(人倫)을 넘어서 천륜(天倫)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효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효를 중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효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효를 행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위엄을 버리고 인성을 취하셨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인간이 되어 초라하기 그지없는 말구유에 누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행하셨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심으로 효의 모범을 보이셨다. 소년 시절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했다. 아버지 요셉을 도움으로써 효를 실천한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이셨다. 극한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아들의 죽음으로 힘들어할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다.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주도록 부탁하셨다(요 19:26-27).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으로 지극한 효성을 보이셨다.

## 효를 사회윤리로 확장시킨 ‘사도 바울’

정통과 유대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도 효를 강조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을 경고하며 부모 공경을 실천할 것



김하진(유치2부), 김하은(유아2부), 김이안 어린이(유치2부)가 카네이션 감사카드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임단비 어린이(서빙고 유치2부)가 자신이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애교를 부리고 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잠 20:20).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신 27:16).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엡 6:1).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골 3:20).



을 강조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부모자녀 간 효를 사회윤리로까지 확장시켰다.

“그대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딤후 5:1-4).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딤후 5:8).

사도 바울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라고 가르쳤다. 유교의 효가 부모자식 간 도리를 강조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효는 유교의 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

로는 가족을 넘어 이웃까지 네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효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효다.

#### 막중한 부모의 역할, 부모에게 효를 배운다

자녀가 효를 행하게 하려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한다. 효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다(제5계명). 그렇다면 효도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는 자녀 된 도리로 부모인 나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고 무턱대고 훈계하면 될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주목하자.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엡 6:1-4).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한다.

구약 성경은 부모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끝을 맺었고(말 4:6), 신약 성경은 부모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시작했다(눅 1:17).

그만큼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효도를 받기 전에 먼저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하는 이유다. 부모가 먼저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야 한다.

십계명을 잘 지켰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언급된 계명이 있다. 바로 제2계명(우상 금지)과 제5계명(부모 공경)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나 자신이 장수하고, 대대손손 복을 받고 형통하고 싶다면 효도하라.

#### 유일한 대안 기독교적 효 실천

지난해 어버이날 다음날인 5월 9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대형 고무대야 안에 있던 노인의 얼굴은 심하게 맞아 치아가 다 빠진 상태였고, 목에는 세 자루의 칼이 꽂혀 있었다. 범인은 바로 노인의 아들과 딸이었다. 그들은 기초수급자인 아버지 소유의 작은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어버

이날 반인륜적 패륜범죄를 저질렀다.

어디 이뿐인가. 30대 남매가 60대 아버지를 전자총격기로 넘어뜨리고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쏜 뒤 각목과 철근으로 때려 살해하려던 사건도 있었다. 잔소리가 싫다며 격분해 주방에 있던 칼로 부모를 살해한 사건, 본드 흡입을 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어머니에게 양심을 품고 출소한 지 1주일 만에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도박 빚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가방에 넣어버린 사건,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때려죽인 사건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패륜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존속살인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다. 살인사건 중에서 존속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2%, 영국 1%, 프랑스 28%인데 한국은 무려 5%나 된다.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존속살인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다. 문명(文明)과 서책(書冊)이 나오기 전부터 효도는 있었다. 직계 가족과 일신의 행위에 치중한 유교적 효는 한계가 있다. 기독교적 효를 실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 성경적인 효도법 Tip!



#### 첫째,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

“내 아들이여, 네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네 머리의 아름다운 화관이고, 네 목에 두를 목걸이다”(잠 1:8-9).

말씀을 잘 들음으로 공경하자.



#### 둘째, 순종하는 효를 행하라.

“자녀들이여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엡 6:1).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성도다. 세상 사람들

이 불효를 한다 해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



#### 셋째, 공경하는 효를 행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2-3).

‘공경하라’는 용어는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요 5:23)에 나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즉, 하

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우리가 효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 넷째, 부모를 즐겁게 해 드려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 23:25).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때문이다(잠 15:20). 또 의로워야 한다. 의인의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잠

23:24). 무엇을 하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자.



#### 다섯째, 부모를 전도하는 것이 최고 효.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수 2:18).

여리고 성의 라합이 온 가족을 전도해 구원시키는 내용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전도하고 기도해야 한다.

# “순장들의 갈등을 해소하다!”

## 대전, 재교육 프로그램 ‘순장 리엔지니어링’ 실시

순장은 온누리교회 평신도사역의 꽃이다. 순장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만큼 순장은 어렵다. 다년간 순장으로 섬긴 베테랑에게도 순예배 인도가 쉬운 일이 아니다. 순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버겁다고 느끼다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순장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순장들을 위한 처방전을 내놨다. 순장들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순장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교육을 실시했다. 순장의 역할, 순예배 인도 방법, 순원들을 대하는 방법 등 실제로 적용 가능한 강의들이 이어졌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순장 리엔지니어링에 참석한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순원이 순예배에 잘 나오지 않아요.”  
“순예배 나눔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오늘도 순장들의 고민은 끝이 없다. 순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혹시 부족한 나 때문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때로는 자기비판에 빠지기도 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장들이 언제나 오고 싶은 순예배, 풍성한 나눔이 있는 순예배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순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순장들을 위한 맞춤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그래서 순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평소 의지하던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거나 다른 순장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분명 도움은 되지만 원하는 만큼의 통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민은 순장 1년차건 8년차건 마찬가지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순장들의 이러한 고민과 고충에 주목하고 순장들을 위한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해냈다.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온누리교회 최초로 도입된 순장

재교육 프로그램 ‘순장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 바로 그것이다.

### 순장들을 위한 맞춤교육

순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다. 순이 온누리교회고, 순장은 평신도 목회자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순장의 의미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네 순장들을 위한 보수교육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순장학교에서 순장의 기본자질과 소양,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만 순장으로 섬기기 시작한 이후에는 보수교육이 없다. 그러다보니 순예배를 인도하다가 직면하는 어려움, 순원들과 교제하면서 생기는 문제 다루는 방법 등 실제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실시한 ‘순장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교육이 그동안 갈급했던 순장들의 갈등을 말끔하게 해소해줬다.

첫 주 강의는 최도성 장로가 맡았다. ‘순장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순장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최 장로는 “삶의 터전이 선교지듯이 순장은 교회공동체 밖에서도 순장”이라며 “교회와 일터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순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권면했다.

둘째 주에는 대전 온누리교회 담당 박태영 목사가 순의 정의와 순예배 인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순모임에서 무엇을 나누야 하는지도 정리해줬다. 박 목사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나누는 것이 순예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주에는 한건수 집사(예담대표)가 순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순원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질문법도 알려줬다. 한 집사는 “근황을 묻는 것에서부터 일상생활, 신앙생활까지 진솔하게

묻고,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넷째 주에는 박태영 목사가 순장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몇몇 순장들은 순예배를 집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목사는 “순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순예배 장소를 제공한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순장 재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가렵던 곳을 누군가 시원하게 긁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성현 장로는 “2-3년 간격으로 순장 재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올해 처음 순장을 맡은 이종서 순장은 “순장의 역할과 순예배의 방향을 잘 몰라서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3년차 금자유 순장은 “순모임을 인도하면서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번 교육에서 존중과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 순장 리엔지니어링 교육을 마치고

“순이 바로 온누리교회다.”

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박태영 목사님께서 모든 순장들과 교회 리더십들을 초대하셨다.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새로운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순장 리엔지니어링 교육은 4주 동안 매주 주일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졌다. 강의와 나눔, 저녁식사 순으로 진행됐는데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창업을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형편이었

다. 가족들과의 저녁식사 모임도 반납해야 했다. 4월 중순에 있었던 해외출장도 교육일정에 맞게 귀국하는 일정으로 조정해야 했다.

첫 주 교육에서는 최도성 장로님이 강의를 하셨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순장과 리더가 직장 일터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무척 인상 깊었다. 리더의 덕목 0순위는 먼저 순교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큰 도전이 되었다. 평소 순원들을 대하는 태도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도 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내와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모습을 반성했다. 순원들을 잘 섬기며 순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확실히 죽

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원들과 친밀감을 쌓아가는 방법도 배웠다. 순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능력, 일관성,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것과 자기중심성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타 공동체에서 오신 처음 만난 순장님과 금방 친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순원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지도 터득했다. 자신감도 얻었다.

순은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고, 순예배는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즉 그 자체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어가고 있음이 느껴졌다. 이번 교육을

마치면서 앞으로 순예배에 믿지 않는 이웃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순장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순원들에게 흘러보낼 때 서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원들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순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순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유봉국 순장(동누리공동체 사무엘3순장)

새로운 사역을 소개합니다

## 이것이 바로 말씀 먹고 마시는 재미!

차세대 가스펠 프로젝트 ... 부모가 자녀, 교사가 학생에게



가스펠 프로젝트 1기에 참석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공부를 하고 있다.

차세대사역본부가 새로운 사역 ‘가스펠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유치등부와 중고등부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육 프로그램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절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다. 서로 나누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열린 교육이다.

가스펠 프로젝트 1기 과정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됐다. 유치등부 145가정 412명, 중고등부 학생 81명과 교사 39명이 수료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수료한 가정과 교사,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이종진 집사(동작공동체) 가족, 김병규 교사, 표신희 학생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꼬맹이인줄만 알았는데 우리 딸의 신앙이 이렇게 깊은지 몰랐어요”

동작공동체 이종진 집사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딸(아나, 7세)과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리지만 해도 행복하다.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인상 깊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야기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딸이 쓴 글과 그린 그림을 모두 사진으로 남겼을 정도다. 딸의 기특한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하지만 더 큰 은혜는 본인이 받았다.

“사실 가스펠 프로젝트 참가신청은 아내가 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간 거예요.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아내에게 사정이 생겨 이종진 집사 혼자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가게 됐다.

“딸과 둘이서만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이 집사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아이가 쓴 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편지를 써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큰 기대 없이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또박 또박 쓰는 거 아니겠어요?”

딸이 구원을 생각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 부모를 놀라게 한 신앙고백이 또 있다.

“기도할 때 무엇이 갖고 싶은지가 적힌 목록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르는 거였는데 그 목록에는 자신이 원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박선영 성도는 딸이 꿈이나 직업보다 소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때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딸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방법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말씀을 계속 읽어주지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해요. 딸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 학생도 살고! 교사도 살고!

김병규 교사와 표신희 학생(18세)은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김병규 교사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등부 양육부서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시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제자훈련을 꼭 시키고 싶었어요. 공과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때마침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무릎을 탁 쳤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더니 눈빛이 반짝이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구요. 한 학생이 마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졌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학생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원동력이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의 살아있는 표정과 목소리가 이 섬김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행복함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서 주석이나 참고자료를 많이 찾아봐요. 그때마다 성경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도 살아나고, 가르치는 저도 살아나니 이게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표신희 학생(18세)은 가스펠 프로젝트를 ‘마중물’과 같다고 표현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했어요”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과 함께한 소그룹은 정말 최고였다.

“소그룹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나눔을 하면서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 삶에 말씀을 깊이 적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

님과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 질문, 나눔, 적용 ‘하브루타 교육법’

이와 같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수료한 가족, 교사,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나고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가스펠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성경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가르친다.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 1기에서는 책 〈가스펠 프로젝트 1. 위대한 시작〉을 통해 창세기를 가르치고 배웠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가정과 학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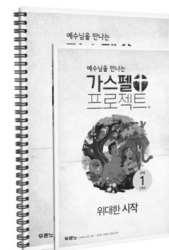
가스펠 프로젝트의 핵심 교육 방법은 이스라엘 유대인 교육법 ‘하브루타’다. 유아부와 초등부 부모에게 한 주 전에 말씀과 관련된 질문들을 나눠주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했다. 교재 속 ‘보물 상자’ 코너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성경 메시지와 자신의 삶을 연결해 보도록 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는 소그룹이 핵심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소그룹을 통해 교재 속 ‘YOUR STORY’ 코너에서 제시하는 질문들을 활발하게 나눈다.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성경 이야기와 자신의 삶을 연결하도록 돕는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권으로 나눠져 있다. 올해 9월에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을 주제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 가스펠 프로젝트가 개강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525

### 〈가스펠 프로젝트〉교재 소개



Lifeway 저, 두란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연령별 성경공부 교재다.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LifeWay는 미국 남침례교단의 출판사다. 주일학교 교재 및 각종 성경 공부 교재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논쟁하는 교육법이다. 끊임없이 “왜”라고 묻고 생각하게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방식이다. 부모나 교사는 학생이 궁금증을 느낄 때 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만 한다.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체득하고, 새로운 해결법을 찾도록 한다.

예시)

아아: “엄마, 책 속에 있는 호랑이가 울고 있어요!”

부모: “정말 그러네? 호랑이가 왜 울고 있을까?”

아아: “너무 추운가봐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 “우리가 호랑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아아: “호랑이 집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부모: “어떤 집을 만들어주면 호랑이가 좋아할까?”

아아: “예쁜 종이 집을 만들고 싶어요”

# People

내가 만난 하나님

은누리교회 성도라면 한정덕 성도의 얼굴과 이름을 한번쯤 봤을지 모른다. 서빙고 신동아쇼핑센터 후문에서 김밥과 강정을 판매했던 이가 바로 한정덕 성도다. 그녀는 40년 동안 부적을 맹신하며 살았다. 힘든 날이 많을수록 부적도 늘어났다. 그런데 아무리 부적을 품고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다. 그렇게 불교에 맹목적이었던 그녀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갔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만 보이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보였다. 딱 한 번 드린 예배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롤러코스터 같은 그녀의 인생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조혜민 기자 hm030@onnuri.org

## 108배에서 새벽기도로!

참기름과 강정처럼 고소한 인생 ‘한정덕 성도’



“아직도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신기해요.”

모든 상황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한정덕 성도.

한정덕 성도는 가정을 두 번 꾸렸다. 첫 번째 남편은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술하에 자녀가 2명 있었다. 남들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말 못할 고통이 숨어 있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었어요. 술과 노름을 즐겼고요. 거기다 늘상 폭력을 휘둘러서 맞고 살았어요.”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정덕 성도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또 견뎌야 했다.

“매일아침 눈 뜰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다고 생각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고통스런 일상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남편과 헤어지고 자녀들과 잠깐의 이별을 선택했다.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나왔다.

### 아무리 공을 들이고 부적을 써도

한정덕 성도가 집을 나와 찾아간 곳은 한 카페였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버텨야 했다.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것 말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공을 드리는 것이었다.

“거의 매일같이 애들이 잘 되길 빌면서 108배를 했어요.”

한정덕 성도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나타났

다. 운 좋게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강정을 함께 팔았어요. 지금의 남편도 만났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부적에 의지하는 제가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저를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배교하는 일은 피를 바꾸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가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하자 남편은 더 이상 전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단지 마음속으로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일길 소망할 뿐이었다. 그녀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부적에 의지했다.

“힘든 형편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제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8배를 더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공을 들이고 부적을 써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안할수록 한없이 부적을 찾았다.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였다. 남편의 베개와 옷 속에도 부적을 넣어두었다.

“어쩔 때는 남편 양말을 몰래 태워 물에 띄우기도 했어요. 문지방은 물론이고 집안을 부적으로 도배를 했었죠.”

###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느 날 남편 지인의 권유로 서빙고 신동아쇼핑센터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은누리교회 성도였던 지인은 장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했다. 지속된 권유에 어쩔 수 없

이 딱 한 번만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이 펄 듯이 기뻐했다. 교회 가기 바로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남편이 갑작스레 토사곽란을 일으켰다.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기어이 저와 함께 교회에 가야 한다며 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남편이 계속 걱정되었다. 자신이 교회에 오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사서 고생하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다. 예배도 별 기대가 없었다. 그런데 난생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왔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잔치집에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집에 가지마자 성경책을 펼쳤다니까요.”

단 한 번 드린 예배가 성경을 읽고 싶게 만들었다. 그렇게 난생처음 성경을 읽던 그녀의 눈에 십계명이 들어왔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에 적힌 말씀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다. 그런데도 부적과 108배에 의존하던 습관은 쉽게 버리지 못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숭배하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꽂혔다. 절망 끝에 서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조깅을 하며 그 메시지를 계속 묵상했다.

“아침마다 3km정도를 조깅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걱정 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걱정을 없애 주셨다. 아이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는 듯했다. 108배하는 습관도 사라졌다.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게 하셨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해졌어요.”

불안이 가득하던 그녀의 마음이 감동과 감격으로 채워졌다. 그러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가 정말 솔직해졌어요. 과거를 감추기에 급급했거든요. 나 스스로를 포장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정말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부터 부끄럽지 않고 싶었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유해졌어요.”

일도 더 열심히 했다. 9.9㎡(세 평) 남짓한 공간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냈다. 만들어진 재료를 사면 편하지만 그녀는 새벽부터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준비했다.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손목이 아프고 피곤하지만 마음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다.

“김밥 장사를 하면서 하루 한 끼만 먹고 일할 때가 많았어요. 잠도 4시간씩만 잤고요. 그래도 전혀 힘들지 않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기뻐거든요.”

힘들지만 했던 한정덕 성도의 삶이 이제는 고소하게 풍기는 참기름과 강정냄새처럼 하나님의 향기를 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9.9㎡(세 평) 남짓했던 가게가 속명여대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는 축복도 누렸다.

“아직도 제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신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니 기쁨이 넘치고요. 손님들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한정덕 성도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 ‘한정덕 솜씨’라는 상호로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서 김밥과 강정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김밥과 강정을 만들고 싶어요. 세계에 강정도 알리고, 하나님도 알렸으면 좋겠어요.”

##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어떤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해 만든 나무상자를 궤(櫃)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주로 돈이나 쌀 같은 소중한 것을 주로 궤에다 넣어 두곤 했지요. 손바닥을 의미하는 ‘장(掌)’이란 글자와 함께 쓰이는 ‘장궤(掌櫃)’는 ‘짱깨’로 발음되는 중국어로 ‘가게 주인’이란 뜻이 있지만, 짜장면과 발음이 유사해 중국을 직접 관련 종사자나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짱깨’라는 단어는 발음도 발음이지만, 손바닥으로 돈궤를 움켜쥐며 재물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중국인의 단면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비단 중국인들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어요? 돈이 갖고 있는 힘은 신(神)의 자리를 넘볼 정도로 워낙 강력하기에 물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어요. 이따금 주위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배신하거나 자신의 소신마저 저버리고 물질을 택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지요. 오죽하면 어떤 사회학자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정의할 수 없다. 다만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맘몬주의만 있다”라고까지 했을까요.

양을 치는 어느 지역에서는 양떼를 도살장

으로 몰고 갈 때마다 맨 앞에 세우는 양이 따로 있다고 해요. 이 양은 다른 양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장에 여러 번 갔다 온 양이에요. 그 양이 도살장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양이 앞장서면 다른 양들은 안심하고 도살장까지 잘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양치기들은 그 양을 ‘가룟 유다의 양’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고통을 몸소 다 겪으셨는데, 자신의 친형제와 같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열두 명의 제자에 뽑힐 정도로 믿음과 열심을 소유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도대체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첫 순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마 26:14~15).

첫 구절에 나오는 ‘그때’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 직후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천만 원 정도의 거금이었어요. 이 향유를 마리아가 아낌없이 예수님께 붓자 가룟 유다의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마 26:8~9).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낭비 운운하는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유다는 당시 돈궤를 맡고 있었는데, 만약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지 않고 현찰로 드렸더라면 그 거금이 자기가 맡은 돈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주머니로 슬쩍 이동시킬 수 있었던 거지요.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다.” (요 12:6).

이처럼 한몫 크게 볼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 유다가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이런 유다의 마음을 간파한 예수님은 유다

를 야단치셨어요.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요 12:7).

그때 유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모든 것을 들켜버린 거예요. 유다는 그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을 ‘돌이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합리화의 분노’로 사용해 버렸어요.

“난 억울해. 나에게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당신이 그동안 수고한 내 헌신을 알기나 해?” 모든 것이 들통 나게 된 상황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죽여 버림으로써 그동안의 자기 죄를 감춰버릴 완전범죄를 꾀곤 거예요. 마침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잖나,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거지요. 게다가 유다는 특유의 수완으로 은돈 30이라는 부수입도 챙길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였던 셈이었죠.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 책으로 만나는 ‘서서평 선교사’

## “그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조선을 섬긴 행복〉,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서서평 선교사는 책으로 만나도 감동 그 자체다. 그녀가 100여 년 전 조선 땅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의 가치는 영화나 책이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의료, 교육,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다. 자신의 주검마저 기증하고 천국으로 떠났을 만큼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가슴 시린 사랑이 한 글자 한 글자 녹아 있는 책이 세 권이나 된다.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조선을 섬긴 행복〉,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가 바로 그 것이다. 책으로 만나는 서서평 선교사는 영화에서 하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 선교 보고서, 사진 자료, 그녀를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 조혜민 기자 hm030@onnuri.org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은 백춘성 장로가 썼다. 백 장로는 서서평 선교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광주신안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가 서서평 선교사가 주일확장 운동 때 설립한 교회이다.

백춘성 장로는 광주신안교회 전도사로부터 서서평 선교사의 헌신된 삶에 대해 들으면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서서평 선교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첫 번째 책이 〈천국에서 만납시다〉이다. 이 책을 개정한 책이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이다. 서서평 선교사가 가까이 접했던 십자가의 삶을 노래했다.

그녀가 당시 미지의 세계와 다름없었던 조선

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삶은 다른 선교사들과 달랐다. 당시 조선사람들은 하루에 감자 하나 먹기도 힘든 실정이었다. 서서평 선교사는 자신의 월급을 털어 조선인들을 먹이고 입혔다. 서서평 선교사는 진짜 조선인으로 살았다. 조선인들과 함께 송늬를 먹었고, 한복에 고무신을 신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을 물심양면 도왔다. 서서평 선교사의 섬김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녀에게는 14명의 양딸과 양아들이 있었다. 모두 조선을 한없이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서서평 선교사를 한번이라도 만났거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씨와 상관없이, 건강하던 그렇지 않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  
백춘성 저 | 두란노 | 12,000원

든 모두 사랑의 대상이었다. 당시 팔시반던 여성들의 처지도 매우 안타까워했다.

“지방 사람들은 아버지에게는 ‘예’, ‘하십시오’ 같이 존칭을 쓰면서 어머니에게는 어린아이들도 ‘어이’, ‘하소’ 라며 하대했는데 서평은 이 또한 그냥 두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도 반드시 ‘예’, ‘하십시오’ 라는 존칭을 써야 한다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다.”

조선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려고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자신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다. 그녀가 운명했을 때 세상에 남긴 거라곤 담요 반 장과 27전, 강냉이가루 2홉이 전부였다.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을 읽으면 그녀가 삶으로 보여준 희생, 헌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녀는 입버릇처럼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조선을 섬긴 행복〉과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도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그린 책이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과 희생 그리고 헌신을 기록했다. 서서평 선교사의 한 평생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서서평 선교사가 곁에 와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조선을 섬긴 행복〉은 서서평 선교사와 주변인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책 후반부에 선교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서서평 선교사가 조선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임락경 목사는 책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축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십자가를 기대고 생활하면 무척 편리합니다.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질병도 고치고, 돈도 벌고,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험하고, 굶주리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서서평 선교사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누적 8만 돌파

다양성 영화 1위, 관람객 평점 9.46, 골든에그 평점 99%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현재까지(5월 12일 기준) 누적관객 수 8만 명을 돌파했다. 개봉 4주차에도 선전하면 1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영화를 관람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가능하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몰고 온 감동의 물결이 멈추지 않고 있다. 개봉 3주차인 지금까지도 다양성 영화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외 블루버스터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 오피스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버 관람객 평점 9.46, CGV 골든에그 평점은 99%나 된다. 그야말로 극장가에 작은 예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처럼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원동력은 서서평 선교사의 삶 자체가 놀랍도록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서서평 선교사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 "서서평 선교사도 테레사 수녀 만큼이나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평하고 있다.

특별한 상영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서울극장에서는 은퇴목회자와 선교사 등을 초청해 특

별상영회를 개최했다. 이재훈 담임 목사, 하용삼 목사(전국은퇴목사회), 박민하 선교사(GBT 전 대표), 박수정 목사(예수사랑사모선교회)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CGNTV는 이번 특별상영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특별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극장에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상영 시간은 홈페이지(<https://shepping.modoo.at/>)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10-8895-4649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약지위 획득

### NGO 더멋진세상, 국제적 단체로 발돋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약지위를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국제적 단체로 발돋움 했다. 설립 7년 차인 NGO단체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약지위를 획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특별협약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견을 표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 11개

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석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제한적 발언, 산하기구에서는 무제한 발언할 수 있다. 또한 유엔 경제사회위원회나 특별한 역할을 소유한 단체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나 조언을 요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김창욱 사무총장은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국제적인 단체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구촌 이웃들에게 흘러보내겠다"고 밝혔다.

## 남양주 B공동체 등산 및 여행

### 전도대상자 70여 명과 문화유적지 투어

남양주 온누리교회 B공동체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도 포천 일대로 등산 및 여행을 다녀왔다. 등산 및 여행은 평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와 함께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여행이다.

이번 등산 및 여행에는 남양주 B공동체 성도들과 전도대상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삼부연폭포, 포천 아트밸리, 금현리 고인돌, 광릉 등지를

다녀왔다. 문화해설사 임찬웅 순장의 풍성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참석자들 모두 이번 여행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대경 집사는 "모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는데 너무 즐거워 하셔서 덩달아 기쁘다"고 했고, 현시는 자매는 "버스에 타는 것도 재미있을 만큼 행복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 온누리요양센터 개원 11주년 감사예배

### 서초B공동체는 군포 하나로에서 생일파티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 온누리요양센터가 지난 10일 개원 1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는 송영범 장로의 대표기도, 입소 어르신과 온누리요양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호산나찬양팀의 찬양, 양재 온누리교회 오카리나 공연팀 조이엘의 특선, 도육환 목사(양지 온

누리교회)의 설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호욱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정성과 사랑을 전하는 온누리요양센터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10일) 군포하나로남자중

장기청소년쉼터 부설 '꿈의집지역 아동센터'에서는 특별한 생일파티가 열렸다. 서초B공동체 2다락방이 청소년들에게 생일파티를 열어준 것. 앞으로도 월1회씩 생일파티를 열어주기로 약속했다.

이날 윤형주 장로는 센터에 모여 든 아동·청소년들에게 미니콘서트를 선보였다. 예정된 콘서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기타를 탔다. 사인 CD를 선물하고 복음도 전했다.

## 한동대,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 연구원 모집

### 네팔에서 최소 1년 근무, 영어, 네팔어 가능자 우대

한동대학교에서 5월 25일까지 네팔 포카라대학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연구원을 모집한다.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에서는 '히말라야 약용식물 등의 바이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알로 천연 섬유 생산 공정 기계화', '룩타 전통 종이 생산 공정 기계화', '하이브리드 전기 리튬(인력)기 개발', '네팔 내 박물관 및 갤러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Micro-processor 기반의 적정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연구원으로 선발되면 사업 종료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최소 1년).

기계공학, 생명공학, 전기/전자공학, 정보통신, 기술사업화/기술경영을 전공한 석사 이상 또는 실무 경력이 뛰어난 자가 대상이다.

문의 : 054-260-1949

## 북한선교학교 14기

### 참가자 모집

북한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북한선교학교는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A에서 진행된다. 북한선교와 통일한국의 비전, 북한사람 이해, 북한 인권상실과 교회 역할, 북한경제 현안과 통일 준비, 탈북민 복음화 사역, 통일환경과 방향성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통일촌을 방문하는 아웃리치도 준비되어 있다. 회비는 5만원.

문의: 010-3301-2897

| 2017 CMN 현장사역팀 여름 아웃리치 일정 |                   |                       |                       |                                 |                         |
|---------------------------|-------------------|-----------------------|-----------------------|---------------------------------|-------------------------|
| 팀                         | 일시                | 장소                    | 회비(원)                 | 모집분야                            | 담당자                     |
| 본부                        | 7월 8일(토)~17일(월)   | 케냐 모바사                | 의료인 230만<br>비의료인 240만 | 소아과, 내과                         | 오찬병 간사<br>010-5257-4566 |
| BEE                       | 8월 24일(목)~27일(주일) | 제주도                   | 70만                   | 안과, 약사<br>간호사, 비의료인             | 김선아 팀장<br>010-6773-2136 |
| 마노아                       | 7월 19일(수)~24일(월)  | 인도네시아 랑풍              | 110만                  | 소아과, 정형외과,<br>치과, 약사            | 이대현 팀장<br>010-3387-7764 |
| 드림                        | 8월 12일(토)~17일(목)  | 인도네시아 팔렘방             | 140만                  | 의사, 약사, 간호사,<br>미용사, 비의료인       | 우승엽 팀장<br>010-4230-1474 |
|                           | 8월 12일(토)~18일(금)  | 스리랑카 해트               | 160만                  |                                 | 오경원<br>010-2586-5447    |
| 라파                        | 7월 29일(토)~30일(주일) | 안산M센터                 | -                     | 미용사, 발마사지,<br>수기, 비의료인          | 심형섭 팀장<br>010-3227-9915 |
| 토티                        | 8월 11일(금)~16일(수)  | 태국 춘부리 발라<br>동 태국국제학교 | 130만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br>치위생사, 간호사, 약사 | 김택수 팀장<br>010-8902-5987 |

### 양재 5월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5월 21일(주일) 오후 3:30 /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자: 4월 2일~5월 6일까지 등록한 성도

|                          |                                 |                          |                          |                                 |                                              |                                       |                         |
|--------------------------|---------------------------------|--------------------------|--------------------------|---------------------------------|----------------------------------------------|---------------------------------------|-------------------------|
| 강남A<br>김경희               | 강남C<br>김성주<br>김태자               | 강남D<br>이용승               | 분당B<br>이정수               | 서초B<br>김미혜<br>안원희               | 허경아                                          | 윤철원<br>장정현                            | 푸른누리<br>문경복<br>민철홍      |
| 강남B<br>김명희<br>김호현<br>심주은 | 박영희<br>박은주<br>이경란<br>조소현<br>홍신인 | 분당A<br>김영룡<br>박선우<br>홍동완 | 서초A<br>김영순<br>문영민<br>윤석한 | 서초C<br>안홍식<br>양선경<br>이미자<br>최민정 | 양재<br>고귀순<br>김주향<br>박민수<br>서한숙<br>여영순<br>윤여숙 | 정인근<br>조복순<br>조후현<br>최인화<br>허민<br>허덕순 | 송파<br>문희수<br>배성훈<br>원현주 |



도교 기 · 도 · 제 · 목

- 5월 15일(월) 전 일정과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기를
- 5월 16일(화) 실행위원들이 구원의 열정과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 5월 17일(수) 모든 참석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 5월 18일(목) 이재훈 담임목사님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붙들여 주시길
- 5월 19일(금) 감사전, 게스트, 스태프, 봉사자들이 성령충만함으로 섬기도록
- 5월 20일(토)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 5월 21일(주일) 도교 교회들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 ■ 서초 홀리스타 간증



/ 김효정 팀장(여호수아공동체)

## 새벽예배의 감동

몇 년 전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가 진행 되던 때였다. 지금은 새하얗게 잊어버린 삶의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들을 안고 홀리스타(청년들의 도심 속 새벽기도회)에 처음 나갔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나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네 인생이 아닌데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가 붙잡고 있던 고민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 문 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이었다.

내 삶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다. 그런데 나는 주인을 잊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기도만 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후 새벽기도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 새벽기도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종종 새벽을 깨우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예배에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

“너무 피곤해요, 바빠요,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요.”

정말 피곤할 수도, 바쁠 수도,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

명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 이었다. 주제에 대한 말씀과 기도를 삶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하루가 완전히 다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삶이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수록 더욱 새벽예배에 나오기를 권한다.

섬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있다. 특히 서초 홀리스타를 섬기면서 매일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새벽예배는 변수가 많다. 섬김이들이 나오지 못하거나 늦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 때마다 부족한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누구도 늦게 오거나 못 오는 사람을 질책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서초 홀리스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

서초 홀리스타는 2개의 공동체(여호수아와 SNS)가 연합으로 섬기고 있다. 애써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새롭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여러분도 새벽예배의 감동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문의: 010-7479-7077

## ■ 창조과학스쿨 수료 간증



/ 김현수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 창조과학으로 창세기 다시읽기

나는 주일을 제외하고 교회에 눈 돌릴 틈이 없었다. 직장생활이 바빠 아이스쿨 강좌뿐만 아니라 교회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학업문제도 있었다. 주일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었다. 내 신앙에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스쿨 강좌를 살펴봤다. 좋은 강좌들이 많았지만 평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계속 살펴보면 중에 ‘창조과학으로 창세기 다시읽기’라는 주일 오후 과정이 눈에 띄었다. 이 강좌는 나에게 가슴에 단비와 같았다.

강의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평소 친근하게 생각했던 노아 홍수 이야기와 우주, 지층과 화석, 인체의 신비, 공룡이야기 등이었다. 처음에는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전문가도 아닌데 괜히 신청한 것 아닌지 후회도 했었다. 하지만 과학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 과학을 이용해 성경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번 기회로 성경을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배울 수 있었다. 학창시절 배운 진화론의 시조새는 알던 것과 달랐다. 시조새는 새의 조상이 아닌 그냥 새였다. 생물 시험을 만점받기 위해 암기했던 헤겔의 배아

발생도는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유명한 관광지이자 인류의 유산이라고 알고 있던 그랜드 캐니언은 노아 홍수의 증거라는 것도 배웠다.

나는 그동안 성경을 단군신화나 그리스신화처럼 너무 막연하게 읽었던 것 같다. 창조과학스쿨 수료를 계기로 스스로 반성하게 됐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도 돌아봤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 그럼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벽기도에 나갔다. 그래도 변함이 없으면 철야예배에 나갔다. 마지막 보루는 금식을 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지니처럼 생각했던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나는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 양재 새신자들을 섬기고 있다. 처음 온누리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다. 새신자 분들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기존 성도님들께도 이 과정을 추천한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다.

## ■ 영등포구로공동체 광야교회 자매결연



/ 김성진 총무(영등포구로공동체)

## Home sweet Home

2년 전 광야교회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가 기억에 남는다. 영등포구로공동체 리더십들이 초대받았다. 당시 다락방장이었던 나도 초대를 받았는데 썩 내키지 않았다. 왜 하필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잔치에 가야 하는지,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길가에서 무료 배식을 기다리고 있던 노숙인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때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내게 “넌 나와 다르네. 여기 뭐 하러 왔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순간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광야교회 본당에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눈빛과 묘한 냄새 등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광야교회에 마음이 갔다.

작년에는 광야교회 노숙자들 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학생들을 위해 컴퓨터와 책상, 강사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17주년 광야의 날 행사에서는 영등포구로공동체가 물질 후원을 하고, 안내와 배식봉사를 했다. 1,500명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대접하고 겨울잠바를 선물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 그들과 나의 인생이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그들과 인사하고, 함께 밥을 먹고,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작년 영등포구로공동체 1개 순과 광야교회 청년 한 명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준비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순 위주로 실시하기보다 공동체 전체 행사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 결실이 바로 지난달 29일 진행된 ‘Home sweet Home’ 자매결연행사다. 영등포구로공동체가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집과 같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지었다. 그날 주인공은 영등포구로공동체 23개 순과 23명의 광야교회 청년들이었다. 영등포구로공동체 순이 광야교회 청년들을 입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날 광야교회와의 자매결연식은 스물세 쌍의 신랑신부의 결혼식 같았다. 앞으로 23명의 광야교회 청년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영등포구로공동체가 계획하고 있는 ‘1개 순 1사역지’ 목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조이 선교사(중동A국)

## 중동 A국에서 만난 인연들

올해 초는 하나님의 총만하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캄캄했던 어둠이 사라지는 시간이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됐다.

중동 A국에서 사역하며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M형제는 나에게 기타를 배우고 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목마른 친구인데 기타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M형제는 직업군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끔은 놀랍고 신기하다. 지난주에는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작은 콘서트에 M형제를 초대했다. 그러자 자기 친구를 데려와도 되겠냐고 했다. 함께 데려온 친구도 군인이었다. 둘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콘서트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갔다. 처음에는 ‘M형제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참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서서히 그를 만져주심을 느끼고 있다. M형제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길에서 우연히 E형제를 만났을 때는 많이 놀랐다. 아내가 한국인이었고 나와 고향과 전 공이 같았다. E형제와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

M, E형제와 달리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다. G, ER형제와 계속 교제하고 있지만 이슬람이라는 사슬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G, ER형제를 붙잡고 있는 커다란 이슬람의 사슬이 끊어지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부어지기를 바란다.

요즘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마태복음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만남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중동 A국 현지인들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젊은 청년들의 부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연합하기를,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며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도를 부탁한다.

## 장로칼럼

### 이주민선교의 쇄빙선이 되자!



임광순 장로  
(찬양공동체)

2014년 찬양공동체 국내 아웃리치 장소를 찾고 있었다. 이주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을 만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작은 음악회를 열고자 했다. 3개의 이주민 교회들이 외국인 근로자 500명을 모아주겠다고 했다. 갑자기 음악회 규모가 커졌다. 그 교회들의 제안에 겁도 없이 ‘이주민선교음악회’를 준비했다. 주향한사역팀이 연출팀이 되었다. 장소도 찬양사역팀 규모에 맞게 지역에서 가장 큰 예향교회로 정했다.

그러나 막상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아주겠다고 이주민 교회들을 살펴보니 100명도 모을 능력이 없었다. 그렇다고 나무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다. 이주민 교회들과 함께 새벽기도를 드리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낮에는 동두천, 의정부 등지를 돌아다니며 이주민 교회들을 수소문하며 참여를 호소했다. 지역 교회의 협조도 구했다. 또 복누리공동체의 협조로 노방전도를 하며 홍보전단을 뿌렸다. 최선을 다한 결과 5개 이주민 교회에서 200여 명의 이주민들이 참여해 음악회를 마칠 수 있었다.

나의 어리석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음악회가 끝나자 예향교회 담임목사님께서 3년 동안 이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 후에는 예향교회가 독자적으로 이주민음악회를 열겠다고 했다. 그 말에 현혹되어 이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다른 이주민 교회들은 관심이 없었다. 음악회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포기할

무렵 이주민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 환경이 열악했다. 음악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다. 이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주민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순장사관학교 아웃리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장사관학교 팀장에게 연락했다. 이주민 교회 명단을 주면서 아웃리치를 부탁했다. 그 중에서 5개 이주민 교회가 선정되어 아웃리치가 진행되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이주민 교회들을 감동시켰다. 이주민 교회들은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음악회를 추진했다.

2015년에도 풍성한 음악회를 열었고, 2016년에는 ‘이주민에 의한,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의 음악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주민 교회 선교사님께 연출책임을 부탁했다. 20개 교회에서 5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참여해 대축제가 열렸다. 3년 만에 5개 교회에서 20개 교회가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이주민을 위한 음악회만 하신 것이 아니다. 이주민 교회 선교사들의 기도모임인 ‘열방기도회’와 ‘열방선교네트워크’라는 이주민 교회의 연합을 만드셨다. 이주민 선교 사역자의 노하루를 발표하는 선교포럼도 2년째 개최해서 선교 정보를 공유하게 하셨다. 이주민선교는 홀로 이룰 수 없다. 이주민 선교의 일등공신이었던 순장사관학교 아웃리치는 앞으로도 이주민선교를 도울 것이다. 온누리교회가 이주민선교의 쇄빙선이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 이주민 교회들과 지역 교회들을 깨워 이주민선교에 동참시킬 때 이주민선교의 부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권사칼럼

### 30년 기도의 응답



이규성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나는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많은 길이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었다.

“전도는 고상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레아예수를 믿지.”

어느 날 내게도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 전도대상자에게 “교회 다녀보시면 참 좋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라며 전도했다. 사실 이 말을 하던 내 스스로가 한심스러웠다. 전도 전문가들은 전도할 때 말씀을 인용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는 전도는 그들의 전도와 달랐기 때문이다. 나의 첫 전도는 상실감만 듣게 했다.

그 일이 있고 한 주 뒤였다. 온누리신문에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고 바로 신청했다. 훈련은 만만치 않았다. 훈련을 받으며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었다.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드셨다.

우리 시택은 조상을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양반 집안이다. 나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시택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복

음을 받아들이셨다. 교회 다니며 권사 임직까지 받으셨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쉽지 않았다. 유교사상에 젖어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도폭발훈련생 시절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그때 함께 훈련받던 조원들과 시아버님께 복음을 전하러 찾아가 간 적이 있었다. 심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며 아버님께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씀을 처음 전해드렸다.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역정을 내셨다. 남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으며 항상 배풀고 살았다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 낙심되고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지난 새벽기도회 때 아버님께 다시 한 번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왔는지 아버님은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셨다. 지난 30년 동안 시택식구를 위해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이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셨다. 아버님은 병상에서 세례까지 받으셨다.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아버님은 병상에서 누구보다 크게 아멘을 외치셨다. 그 순간에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넘쳐흘렀다. 전도폭발훈련 덕분에 전도에 대해 입도 뻥긋 못 하던 병아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전도폭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맞춤형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을 통해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다. 앞으로 소망이 하나 더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팔팔하게 전도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신앙에세이



마크 최 목사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입니다.” 지난달 16일 부활주일. 포트리의 80여 가구에 뜻밖의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바구니를 들고 교회 인근 가정들을 찾은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다소 놀란 듯했다. 그러나 이내 아름다운 과일바구니와 카드를 전해 받고 함박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일은 지역사회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를 고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만약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주말마다 벌어지는 주차와 교통 혼잡이 사라지게 되어서 좋아할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2009년 5월 17일 포트리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골 2:22)는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매주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데 점점 너무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부활절 주일에 교회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과일바구니와 감사편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전달할 과일바구니는 고난주간 동안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만들었다. 바구니와 바구니를 장식할 물건들을 구입했고, 바구니 안에 담을 상식한 과일을 구하기 위해 발품도 팔았다. 바구니 안에 들어갈 카드는 직접 디자인하고, 카드 안에 진심어린 메시지를 기록했다. 부활주일 하루 전에 성도들은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과일바구니를 완성했다.

드디어 부활주일 아침이 밝았다. 각 다락방은 구역을 나눠 80여 가구를 찾아가었다. 어떤 이들은 과일바구니를 들고, 또 어떤 이들은 길거리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장갑과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성도들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Happy Easter!”를 외쳤다. 부활절 인사와 함께 과일바구니를 전달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대부분 매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고, 일부 주민들은 뉴저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싶다고 다음 주일에 데리러 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

은혜의 물결은 부활절 이후에도 계속됐다. 교회에 가는 성도들에게 주민들이 손을 흔들며 반기움을 표현했다. 조운행 공동체 본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세 가지 감사를 표현했다. 첫째,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에 지역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했다. 셋째, 사역을 준비하면서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기대가 된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또 다시 지역 사회를 섬길 행복한 꿈을 꾸며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가난한 이를 도우라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농장 주인이 자랑스럽게 웨슬레에게 질문했습니다.

“웨슬레 선생님 제 농장을 구경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잠시 침묵한 이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려면 몹시 힘드시겠습니까.”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떠나면서 짐을 털은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청지기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드러내는 일

둘째,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히 주라’ ‘인색하지 마라’ ‘주먹을 움켜쥐지 마라’ ‘손을 펴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본능에 충실하면 주먹을 펴지 못하고 움켜잡습니다. 인색합니다. 넉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손을 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온전한 복음이 드러납니다.

미국 월드비전 회장 리처드 스텐스가 쓴 〈구명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캄보디아 현지인이 그것도 현지에서 예수 믿고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의 간증이 나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대학살 사건 이후 외부사람들을 전혀 믿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현지에서 예수 믿고 사역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간증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신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교신자인 나라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교국가에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역자가 되기

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우리 마을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슨 공짜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결핵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진료를 만들어주고, 학교를 만들어주고, 농업기술을 가르쳐 주어서 수확량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의심이 가시지 않고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책임자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책임자가 제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금금증이 생겼고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 넉넉한 하나님의 복 누리는 삶

셋째,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히 도와주는 것이 결국 자신도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6절).

“그에게 넉넉히 주되 네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10절).

여러분, 나눔은 복을 가져옵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복을 주십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경제가 일어나는 나라들을 보면 나누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정책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과 사랑과 복음증거가 열심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을 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미국의 대공황이었던 1933년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대공황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이 가장 많았습니다. 바로 그 나눔이 미국경제를 회복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충분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복된 삶의 길입니다. 어느 지역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고 하는 애완용 새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새가 예민한 호흡기를 가지고 있어서 유독환경을 사람보다 훨씬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 새가 기침하고 숨막혀하면 곧 위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탄광에서 나와야 하는 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이 카나리아는 어쩌면 우리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침하고 숨막혀할 때 그들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시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삶과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통일칼럼

## 보고, 생각하고, 소통하기의 글로벌시민교육

전 세계를 뒤덮는 두 개의 메가트렌드가 있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다.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3.2%였다. 반면 합계 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감에 따라 노인부양률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일곱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한다면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세 명이 노인 두 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이다. AI같은 단어가 이제 낯설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로봇조차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업, 위험하고 어려운 직업을 제외하고는 로봇이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현재 직업의 80%가 10년 내 사라지거나 진화하고 10년 후 나타날 일자리 중 60%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도 이 두 가지 메가트렌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두 메가트렌드는 버겁다. 여가 다 통일이 더해지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다. 이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며, 그 주인공은 다음세대들일 것이다. 그렇기에 적절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입시위주, 취업위주의 교육으로는 통일한국을 마주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 지식과 정보의 수명이 나날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뜨겁게 조명 받던 정보가 불과 한 달 만에 찬밥신세가 된다. 대학 1학년 때 배운 지식이 졸업할 때 낡은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을 배워야 한다. 한 번 배운 지식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평생학습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보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3가지를 가르쳐야 한다. 대학생들에게 요즘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물으면 ‘취업이요’, ‘번듯한 직업이요’라고 말한다. 물론 취업과 직업도 중요하다. 그런데 취업이 전부일까.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세계시민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시민이라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아는 것이 당연하듯이 세계시민이라

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도전적인 이슈를 알아야 한다.

2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는다. 하루에 5만 명의 어린이가 먹을 것과 약이 없어 죽는다. 전 세계 인구의 1/3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다.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글로벌 이슈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문제를 봤으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생각하고 분석해야 한다. 친구들과 같이 토론하고 협력해서 답을 꾸려가는 활동을 해야 한다. 좋은 결론이 나면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의견을 전달해서 공감하게 만들고, 같이 해결해 가는 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의 특징이다. 보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은 한번 배우면 평생 간다. 이런 교육이 통일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서도 경쟁패러다임 속에서 생각한다. 남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 받기를 원한다.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 살아갈 동안 벌 수 있는 돈의 합계일까. 아니다. 나의 가치는 나를 사신 분에게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혈로 사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가치는 무한대이므로 나의 가치 역시 무한대이다. 같은 무한대끼리는 비교할 수 없다.

남한 학생의 무한대와 북한 학생의 무한대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북한을 포용할 수 있다. 그들도 예수님이 피 흘려 산 생명이자.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 앞에서 ‘내가 더’라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은 크리스천들이 앞장 서야 한다.



최동성 장로(통일위원장, OCC 공동체)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대한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신관 4층 누리를

주일 7부 콰이어 모집

시간: 매 주 일 저녁 7:30-10:30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종교개혁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강사: 이재훈 목사, 전재혁 목사, 유기성 목

사, 권혁빈 목사 등

방문: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일정: 8월 14일~25일(10박 12일), 310만원

문의: 02-570-7068

CMN마노아팀 아웃리치 모집

장소: 평택 온누리교회 인도네시아예배

일시: 5월 21일 9시 20분 서빙고 출발

사역: 외국인 대상 의료, 미용, 전도 등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CMN 마하나임팀 아웃리치 모집

장소: 남부 교회(창신동) 러시아어 예배

일시: 5월 28일 (주일) 오후 2시 남부교회

사역: 의료, 미용, 한방, 수기 치료 등

문의: 권세윤 팀장(010-8898-3719)

제5회 온누리 열방 탁구대회

일시: 6월 6일(화),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쌍용공원 전시장

대상: 온누리 등록교인 및 지역 주민

문의: 고길범 팀장(010-3772-3886)

두란노서원 출판2부 채용 공고

모집: 단행본 기획 편집자 1명(경력 3~5년)

마감: 5월 21일(일)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두란노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6월10일~7월08일(매 주 토 오후3시)

장소: 온누리교회 안인자 기념관

접수: 02-2182-9100 / [www.father.or.kr](http://www.father.or.kr)

문의: 이기훈(010-4215-5837)

인천 온누리교회 전임간사 모집

모집: 예배, 음향 및 행정담당 간사 1명(남)

문의: 신상민 간사(032-437-9686)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 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 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 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 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 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8만 명 돌파

누적관객수  
(5/12 영화진흥위원회 기준)

1위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

올해 개봉한  
다큐영화 흥행

99%

CGV 골든에그  
(실관람객 추천지수)

8만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며 장기 흥행에 돌입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받은 사랑을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에 나누고자 특별상영회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해 큰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온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은퇴(안식년)선교사, 은퇴목회자, 홀사모 초청 특별상영회” 개최

앞으로도 특별상영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곳에  
사랑과 섬김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 제 자신의 아픔과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지난날의 잘못을 만회하는 심정으로 다시 선교지로 가고자 합니다.”

그레이스 선교사 (컴미션)

“서서평 선교사님이 믿음의 열정으로 머나먼 한국 땅까지 오셔서  
헌신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받은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박민하 선교사 (CBT)

“서서평 선교사님이야말로 한국교회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뿌려진 씨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감동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뛰노는 것 같습니다.”

하용삼 목사 (수산교회)

“홀사모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홀로 된 한 여인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아낌없이 주지 못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외로운 자들, 고아들을 위해서 더 헌신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박수정 목사 (예수자랑사모선교회)

not success but service

제작 CGNTV



예매하기